

# 국공립대 83% 학교운영 심의 대학평의회 구성 조차 안해

### 김해영 의원, 국공립대 대학평의회 설치현황 분석 47개 국공립대 중 8곳만 설치... 39곳 설치의무 위반

국·공립대 10곳 중 8곳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

평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대구교육대·춘천교육대·강원도립대 등 8개 학교(17%)만이 대학평의회를 설치했고, 경북대·공주대·서울과학기술대 등 나머지 39개 대학(83%)은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

대학평의회는 대학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평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 5월29일부터 대학평의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고등교육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대학구성원의 투명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대학평의회

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들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전주대 재학생 25명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정읍시에 위치한 월천마을과 보성초등학교, 마태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전주대, '지역사회 섬김 실천'

### 정읍 월천마을서 농촌 일손 돕기와 문화행사 진행

기록적인 더위로 우리나라 일부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농번기 농촌지역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전주대 학생들은 더위를 무릅쓰고 올해에도 농촌 봉사활동에 나섰다. 전주대 재학생 25명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정읍시에 위치한 월천마을과 보성초등학교, 마태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은 농촌 일손 돕기를 최우선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비록 농사일이 서툴지만 고추 따기, 농작물 심기, 제초 등 간단한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도우며 적막했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야외활동이 힘든 폭염 취약시간(2시부터 5시까지)에도 학생들

은 쉬지 않았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가 하면 마사지와 미용봉사로 주민들의 누적인 피로를 풀어드렸다. 초등학교와 교회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육 행사, 보물찾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활동적인 교육으로 어린이들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전에 지역과 현지 기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교육과 예행연습으로 내실 있게 진행했다. 보성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전주대 학생 선생님들과 3일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재밌었다"라며 "똥생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고용위기지역 첫 해외취업센터 군산대에 설치

군산대학교에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군산지역의 해외취업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해외취업아카데미 수강, 취업알선 등의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는 고용위기지역에 최초로 구축된 해외취업 거점이다. 센터는 군산시, 군산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자동차와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우수 구직자를 확보해 해외 유망기업 등 양질의 구인처에 매칭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센터 해외취업아카데미는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눈

높이형 해외취업 특강과 상담을 제공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해 해외취업설명회, 박람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취업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해외취업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내년 전문대 수시 비중 86.6%... 역대 최대

### 전문대교협, 전국 135개대 주요사항 발표 수시모집 선발 비중 전년 대비 0.2%p ↑

2019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8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5개 전문대학의 '2019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9일 발표했다. 2019학년도 전문대학 총 모집인원은 20만4813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86.6%(17만7351명)를 차지한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

17만8213명에 비해 0.2%포인트(862명) 감소했지만,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0.2%포인트 올랐다. 수시 선발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모집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매년 수시모집 선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기조를 유지한 데다 전문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를 통한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

기 때문이다. 정원의 특별전형 중 전문대졸 이상으로 전년도(1만94명) 대비 34명 증가한 1만288명을 선발하고, 장애인 등 특별전형으로 전년도(219명)보다 133명 늘어난 352명을 뽑는다. 전문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 4개의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중 대부분 1개 또는 2개 요소만 활용한다. 전형유형별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부 위주 선발 인원은 전체 인원의 78.8%인 13만9695명이다. 면접 위주는 1만9367명(10.9%), 서류 위주는 1만3630명(7.7%), 실기 위주는 4659명(2.6%)이다. /뉴스시

학생부 위주 선발 비중은 13만9695명으로 전년도(14만1614명) 대비 0.7%포인트(1920명)감소한 반면 면접 위주 선발은 1만9367명으로 전년도(1만8280명) 대비 0.7%포인트(1920명) 증가했다. 모든 전문대학은 9월10일부터 일제히 수시접수를 실시한다. 수시모집 접수 일정은 1차는 9월10일부터 28일까지, 2차는 11월6일부터 20일까지다. 일반대와 전문대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전문대는 횡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에서 일반대나 산업대, 전문대 등 1곳이라도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뉴스시

## 도교육청, 응급처치 위한 시뮬레이션 실습

###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최근 정부에서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신설 조항에 따라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2017.11.13.)이 발표되고, 투약행위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필요 및 현상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교내 소아당뇨 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보건교사 중 소아당뇨 관련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보건교사 40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8월 9일과 10일, 이를 통한 전북

대학교 간호대학 실습실 등에서 진행된다. 1일차는 소아당뇨의 원인, 증상관리, 아동·청소년의 건강사정, 상황별 응급처치 등보건 전공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일차는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저혈당성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시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간호대학에서 실습을 통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학교현장 및 보건교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큰

기대와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학생의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만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학교응급환자 대처 능력 향상과 건강요주의자 관리를 통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2차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 유지 증진할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리더십 강화 연수 실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9일 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방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공무원 리더십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충남대학교 이성우 교수의 '백범 김구의 리더십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청렴 골든벨 OX퀴즈대회, 보안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남대학교 이성우 교수는 백범 김구의 생애와 일화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청렴 골든벨 OX퀴즈대회는 부패방

지제도,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출제하여 진행하였으며, 보안 교육은 사이버보안,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의 리더십, 청렴 및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역사적 인물의 생애와 일화, OX퀴즈대회 등을 통해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연수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